

NEAR News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NEAR |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2012. 9-10

Vol. 47

도르노고비 아이막의 델게르항가이 산



특별기고

제10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장 인사말씀

이달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기획취재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 칸사이 광역연합

NEAR 회원탐방

물과 운하의 도시 라오청(聊城)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 서로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의 활동상황, 회원 단체 동정, 관련 국제 동향, 각종 기고, 공지사항 등의 주요내용을 담아 정기적으로 발간,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되며 NEAR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며, NEAR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6



13



15

Vol. 47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통상,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관광, 해양어업, 광물자원개발·조정, 에너지·기후변화, 여성·아동, 생명·의료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몽골의 참여, 신규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으로 현재 6개국 71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연합총회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특별기고

제10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장 인사말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장
대한민국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세기 중반까지가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시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북아는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세계 국가 GDP 총량의 24%,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비롯한 광물과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구릉지는 식량생산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강해야 국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차별화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지역간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96년 출범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경제, 관광, 문화, 농수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단체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각 지방정부가 쌓은 지식과 경험들이 자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 공동번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식량과 에너지 문제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각국과 UN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지사로 일하면서 그 해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깨끗한 공기와 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천여 개의 섬과 6,1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 1,000km²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햇볕이 가장 많고, 해안은 풍속 및 풍향이 일정하고, 수심이 낮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바다경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로 일을 시작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친환경농업은 대한민국에서 무농약 이상 유기농 면적의 61%를, 수산물 5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25%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풍력은 5GW 해상풍력 테스트 베드 구축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은 지혜가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연합의 사무국 및 모든 회원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원단체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NEAR 활동

제1회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개최

제1회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가 10월 9일에서 11일까지 4개국 21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단체 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모색”이란 주제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그 간 솔라시티로서 대구시가 이루어 온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회원단체 간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1회 에너지 기후변화 분과위원회

변경협력 분과위원회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이르쿠츠크 시에서 개최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변경협력 분과위원회가 <동북아 지역발전을 위한 변경협력의 역할>이란 주제로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변경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 회의를 비롯한 바이칼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기간 : 11월 7일(수) ~ 11월 9일(금)
- 장소 : 이르쿠츠크 시
- 연락처 : 이르쿠츠크 주정부 경제발전과 산업부
- 주요내용

담당자	올가 셰르스토바
연락처	7 (3952) 256235
E-mail	o.sherstova@govirk.ru
Fax	7 (3952) 256235

구 분	주 요 내 용
1일차(11. 7)	호텔 체크인, 환영리셉션
2일차(11. 8)	분과위원회 회의
3일차(11. 9)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

• NEAR 사무국

구 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 어	몽골어	러시아
담당자	김성현	이혜정	최수규	히식 자르갈	최경남
연락처	82-54-223-2318	82-54-223-2320	82-54-223-2317	82-54-223-2384	82-54-223-2319
E-mail	neargov@gmail.com	cham0284@gmail.com	s.g-c@hotmail.com	hi_hishgee@yahoo.com	rudska76@hanmail.net
Fax	82-54-223-2307~09				

사무국 소식

“한강정(漢江情)” 후베이성-한국 경제·무역·문화교류 행사 참석



개막식 환영사를 하고 있는 왕광성 후베이성장

김재효 NEAR사무총장은 중국 후베이성의 초청으로 “한강정” 행사 참석을 위해 9월 19일~21일 우한(武漢)시를 방문했다. 후베이성의 중심도시 우한시와 한국 서울을 흐르고 있는 같은 이름의 한강(漢江)에서 착안



개막식에서 티엔청중(田承忠)후베이성 부성장(좌)과 김재효 사무총장(우)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에서 발표 중인 김재효 사무총장



주중국한국대사관 주최만찬에서 옌푸리우(晏蒲柳) 후베이성외사판공실 주임(좌)과 김재효 사무총장



후베이성 명승지 황학루(黃鶴樓) 앞에서

하여 명명된 행사명은 후베이성과 한국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한강정” 행사는 후베이성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의 공동주최로 후베이·한국 경제무역협력간담회, 한중전문가 세미나, 제10회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한중문화공연, 농수산 식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한국의 기업인사를 비롯한 연구 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재효 사무총장은 제10회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에서 NEAR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국 각지에서 참석한 지방정부 공무원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특히 텐진시 외사판공실 자오지옌링(趙劍嶺) 부주임은 NEAR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NEAR-AER 동반자 협정 체결

김재효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NEAR 사무국 대표단은 지난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AER 총회와 세계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였다. 김재효 NEAR사무총장은 10월 10일 세계민주주의포럼에서 ‘동북아시아의 지방분권화와 민주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파스칼 고젠 AER 사무총장과 미셸사방 AER 의장과 만나 향후 AER과 NEAR 활동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 AER과 NEAR간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12일에는 AER 총회에 참석하여 AER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파스칼 고젠 AER 사무총장(좌)과 김재효 NEAR 사무총장(우)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참석

김재효 사무총장은 지난 9월 4일에서 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에 참석했다.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은 방문 첫 날 전문가 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6일에는 WCC 개회식 및 환경리셉션에 참석하였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2012년 해외공무원 사무국 파견근무자 복귀

지난 2012년 5월부터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 파견되어 사무국에서 9차 총회 연락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마이샤 씨가 2012년 8월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했다.



마이샤
(닝샤후이족 자치구)

회원자치단체 동정

헤이룽장성 - 중국

2012신소재산업박람회 하얼빈에서 개최

중국공업정보화부와 헤이룽장성인민정부가 공동주최하는 2012중국신소재산업박람회가 2012년 9월 5일 저녁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성대한 막을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효율,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테마관, 국제관, 중국도시관, 국영기업 및 관련대학관, 종합발전관 등 5개의 전시구역이 설치되었으며 천 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였다. “2012중국신소재산업 고위급 포럼”, “중국신소재 성과 발표 및 프로젝트 상담회”, “2012중국컬러신소재발전서밋”등 7개의 테마별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2중국신소재산업박람회 개막식

후베이성 - 중국

“2012 한강정(漢江情)” 후베이·한국경제무역문화교류행사

후베이성인민정부와 주중국한국대사관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한(武漢)에서 “2012한강정” 후베이·한국경제무역문화교류행사를 공동개최했다.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경제무역협력간담회, 중삼각(中三角: 후베이-후난-장시성) 구축 한중전문가세미나, 후베이한국여행사전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한국의 이수성 전총리, 이규형 주중국 대사, 한국지방정부 대표, 기업인사 및 우호교류단체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강

허난성 - 중국

2012중국세계관광도시시장포럼 9월 26일 허난성 정저우에서 개막

2012중국(정저우) 세계관광도시시장포럼이 9월 26일에서 30일까지 허난성 정저우(鄭州)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국내외 유명 관광도시의 시장(市長)들이 정저우에 모여 ‘관광과 도시’ 등을 주제로 함께 연구 토론하였다. 행사기간 동안 정저우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공연단이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의 클라이맥스인 시장포럼은 9월 28일 하루동안 정저우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관광도시의 랜드마크

이시카와현 - 일본

IJSP (Ishikawa Japanese Studies Program) 미래창조회의 개최

- (1)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 (2) 장 소 : ANA 크라운프라자호텔 카나자와(金沢)
(ANA Crown Plaza Hotel Kanazawa)
- (3) 주 최 : 이시카와현, (재)이시카와현 국제교류협회
- (4) 내 용 : 국내외 지식인 등 15명에 의한 공개토론
- (5) 코디네이터 및 섹션

코 디 네 이 터	섹 셴
마키노 세이이치	I. 일본어/일본문화연수의 평가와 매력제고
나즈키안 후미코	II. 홈스테이의 평가와 확대
오오타니 요시오	III. 참가대학 등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정보발신

이시카와현의 독자적인 일본어·일본문화연수 프로그램(IJSP)은 1987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세계각국의 대학 등으로부터 3,600명이 넘는 연수생을 받아들여 참가 대학 등으로부터 “대학에서의 일본어교육과는 달리 홈스테이 등 보다 생생한 일본어·일본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던 중, IJSP의 미래상을 생각하는 공개회의를 미국, 중국, 한국 등지의 지식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에 입각해서 향후의 발전 방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회의에서는 참가학생들로부터 사회참가의 필요성과 홈스테이의 의의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회의 종료 후, 마키노 세이이치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가 타니모토 마사노리 이시카와현 지사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니이가타현 - 일본

니이가타현 특산물 홍보코너 한국에 연속 개점

1990년,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서울 시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교류 지원을 펼쳐 온 니이가타현이 금년에는 니이가타현 특산품을 홍보하는 상설코너를 서울 시내에 개설하였다. 올 3월에 개설한 1호점은 강남구의 고급 일식당 '오가의 주방' (OGAの厨房) 내에 '니이가타구락부(新潟倶楽部)'라는 이름으로 니이가타산 청주, 쓰이키 동기(鋤起銅器:금속제 그릇)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개점한 2호점도 동작구의 스시주점 '니이가타 와라쿠(新潟和楽)'에서 식기 등을 전시하고 직접 사용함으로써 니이가타현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니이가타현은 이 홍보코너들을 거점으로 니이가타현 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니이가타현 특산물 홍보코너의 모습

경기도 - 한국

경기도, 중국 산둥성과 교류 확대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장따밍 중국 산둥성장은 7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소기업간 사업협력, 대학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교류협

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산둥성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 간 사업협력 촉진을 위해 기업대표자 상호 파견, 정기적 포럼 개최, 기업환경 설명회 개최 등 경제분야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 또 산둥성 랴오청 경제개발구 내에 설립하는 경기도산업단지가 양 지역 경제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게 산업단지 홍보와 기업 입주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산둥성내 고등교육기관이 참가하는 '경기-산둥 대학교류협의회' 창설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무원 연수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행정교류도 강화한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산둥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2000년 4월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지방정부간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분야 교류를 활발히 했으며, 2009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있는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중국 장따밍 산둥성장

경상북도 - 한국

포항시, 쿨비즈룩(시원차림) 근무 에너지절약 등 제고

포항시는 에너지절감과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쿨비즈룩(시원차림)을 입고 근무했다. 쿨비즈룩이란 시원하다는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재킷이나 블라우스 대신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구입한 근무복은 포항시의 시화인 장미를 소재로 문양이 디자인된 것으로 일체감을 조성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감색, 파란색, 다홍색 등 3종으로 제작됐다. 또 평상시에 근무복으로 입으면서도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쿨비즈룩(시원차림)으로 근무 중인 포항시청 공무원들

포항을 알리는 각종 행사와 유원지 근무시에도 착용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발상의 전환과 유연한 사고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획일적인 정장대신 자유롭게 옷을 입도록 하는 '청바지 데이'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르노고비 아이막 - 몽골

제1차 '황금 영양' 국제 시인 페스티벌 개최

제1차 "황금 영양" 국제 시인 페스티벌이 9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자연을 즐기면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도르노고비아이막의 '하트링 히드'를 비롯한 '흐스굴쑤', '하탕볼라그쑤'에서 올랑바타르시의 '자양 테렐즈' 지역까지 순회 개최되었다. 주제의 제한없이 자유주제로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몽골을 비롯한, 터키, 벨기, 네덜란드, 일본, 한국, 중국 등 여러나라의 젊은 시인들이 참가하였다.



제1차 '황금 영양' 국제 시인 페스티벌

올랑바타르시 - 몽골

'2012 한국문화주간 및 K-Pop 경연대회' 개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주관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올랑바타르에서 '2012 한국문화주간 및 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첫째 날부터 '한국영화와 만나다'란 주제로 어린이공원 야외 극장에서 한국 코믹영화 '파파'가 상영되었다. 둘째날은 한국문화주간 개막식이 열렸으며 이 날 한-몽골 외교 및 관광전시회, 한국문화관광 영상물 상영, K-Pop 경연 본선(12팀), 한식 먹거리부스 오픈 및 식자재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몽골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한국 요리과정과 시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K-Pop 경연대회에서는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오른 12팀의 공연이 있었으며 체류수령(17세) 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상품으로 한국왕복항공권과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9월 30일에 한-몽골 외교 및 관광전시회, 70~80콘서트, 파파 영화 상영 3차로 행사가 성료되었다.

사할린주 - 러시아

제16회 <2012 사할린 석유와 가스> 회의와 박람회 개최



제 16회 <2012 사할린 석유와 가스>

회의와 박람회가 2012년 9월 24일부터

27일 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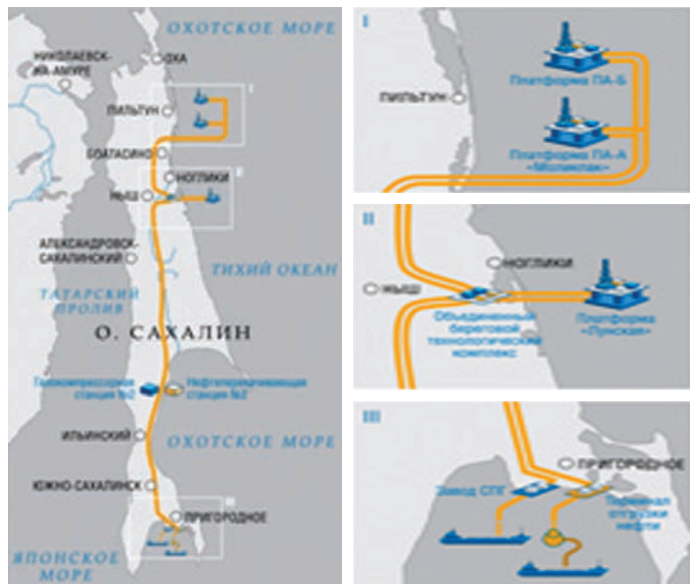
(Yuzhno-Sakhalinsk)에서 사할린 주정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및 CIS 국가 포럼 전문개최기관인 아담스미스사(Adam Smith Conferences)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할린과 극동 러시아-글로벌 에너지 센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 석유, 가스 기업대표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사할린 프로젝트 1-5의 계획과 전망에 대한 논의, 기업대표의 인터뷰, 사할린 2 프로젝트 시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상 송유관 건설



사할린 2 프로젝트 : 해상 플랫폼



사할린2 프로젝트 설계도

| 회원단체 행사일정 |

November

2012. 11.

Sunday

28

4

11

25

Monday

29

5

26

23

30

Tuesday

6

27

25

- 회원자치단체 : 경상남도(한)
- 행사명 : 제15차 국제적조회의
- 기 간 : 10. 29 ~ 11. 2
- 장 소 :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 연락처 : 제15차 국제적조회의 등록사무국
T. +82-2-6000-8114
- Website : <http://www.hab2012.kr>



- 회원자치단체 : 이르쿠츠크주
- 행사명 : 바이칼 비즈니스맨 포럼
- 기 간 : 11. 27 ~ 11. 29
- 장 소 : 이르쿠츠크이르쿠츠크
- 연락처 : 이르쿠츠크 경제발전, 노동, 고등교육부
T. +7-3952-25-60-65
F. +7-3952-25-65-21

December

2012. 12.



- 회원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한)
- 행사명 : 제20회 성산일출제
- 기 간 : 12. 31 ~ 2013. 1. 1
- 장 소 :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일원
- 연락처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T. +82-64-760-3941~6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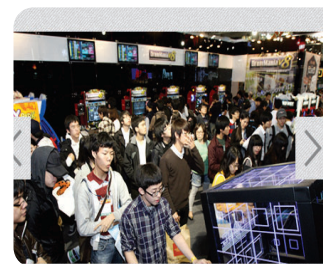
31

- 회원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한)
- 행사명 : 2012 제주올레 걷기축제
- 기 간 : 10. 31 ~ 11. 3
- 장 소 : 올레 10~13코스
- 연락처 : 2012제주올레걷기축제 운영위원회
T. +82-64-762-2190
- Website : <http://www.jejuolle.org>



8

- 회원자치단체 : 부산광역시(한)
- 행사명 : 지스타 2012 국제게임전시회
- 기 간 : 11. 8 ~ 11. 11
- 장 소 : 부산시 BEXCO
- 연락처 : 부산광역시 BEXCO
T. +82-51-740-3420
F. +82-51-740-3404
- Website : <http://www.gstar.or.kr>



Global Game Exhibition
GAME SHOW & TRADE, ALL ROUND
G-STAR 2012

14

- 회원자치단체 : 사하공화국(아쿠치아) (러)
- 행사명 : 제2회 국제 전문 박람회
"석유, 가스, 환경, 에너지-2012"
- 기 간 : 11. 14 ~ 11. 16
- 장 소 : 아쿠츠크시
- 연락처 : 상공회의소
T. +7-4112-42-07-89
- E-mail : tpp14@mail.ru

15

- 회원자치단체 : 부산광역시(한)
- 행사명 : 2012 부산국제합창제
- 기 간 : 11. 14 ~ 11. 17
- 장 소 : 부산시 문화회관
- 연락처 :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T. +82-51-888-3541
T. +82-51-888-4039
- Website : <http://koreachoral.or.kr>

15

- 회원자치단체 : 부산광역시(한)
- 행사명 : 2012 부산국제수산물 EXPO
- 기 간 : 11. 15~11. 17
- 장 소 : 부산시 BEXCO
- 연락처 : 부산광역시 BEXCO
T. +82-51-740-3420
T. +82-51-740-3404
- Website : <http://www.bisfe.com>

Dynamic BUSAN
BISFE 2012

26

27

2012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부산국제합창제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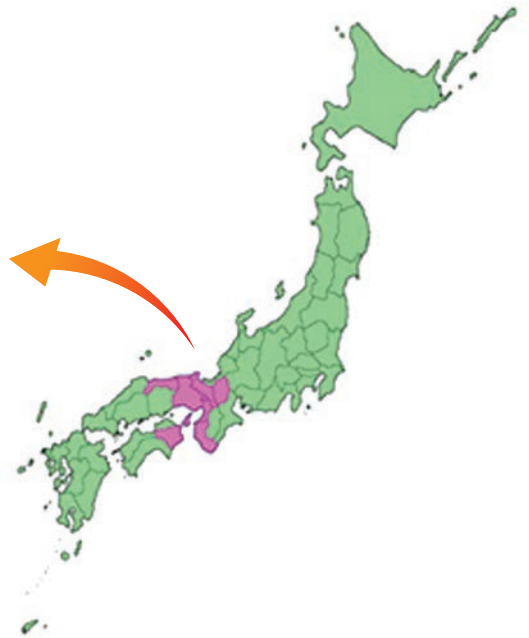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地域のチカラを結集し、個性とパワーあふれる関西へ！
関西広域連合
 Union of Kansai Governments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

칸사이 광역연합

동북아시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각국의 정치제도와 역사, 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발달해 왔다. 이 때문에 NEAR회원자치단체사이에도 지방자치제도의 형태와 운용, 권한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비교적 강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私たちは

関西 広域連合

Union of Kansai Governments

です。

関西
力結集!



関西の2府5県2市で構成する関西広域連合は、府県域を越える広域連合としては全国初の取り組みです。圏域人口は2,090万人で、日本最大の地方公共団体となります。

광역연합이란?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공동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으로 지방자치 강화의 일환으로 1994년 일본의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별지방공공단체의 하나이다.

칸사이광역연합 포스터



1. **닥터헬기** : 광역의료분야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배치 및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의 운항범위와 비용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복수의 닥터헬기의 상호보완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광역합동방재훈련광경** :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의 현실에서 방재에 대한 대응은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방간의 긴밀한 연계도 필요로 하고 있다

설립배경

일본의 칸사이지방은 지금까지 각 도시 및 지역들이 지혜와 개성을 겨루며, 광역연합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칸사이지역을 보다 매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현의 틀을 넘는 연대강화와 지방분권의 추진이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사무 이양이 문제가 되는데, 각 자치단체가 직접 이양을 받을 경우 그 운용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효율면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광역연합의 설립이 논의되어 왔다.

칸사이광역연합

2010년 12월 1일, 칸사이(관서)지방의 2부5현이 모여, ‘칸사이로부터 새시대를’ 이라는 목표아래 ‘칸사이광역연합’을 설립하였다.

이는 복수의 부현에 의해 구성된 일본최초의 광역연합으로써 지역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과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지방분권의 돌파구를 열고, 국가를 다극분권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파견기관을 대신해, 중앙의 권한·사무를 이양 받음으로써 제도적인 피로현상을 보이는 중앙집권 체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조건 등을 중앙(정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칸사이지역’, ‘서일본의 거점으로서 아시아에서 인적물적교류의 허브기능을 하는 칸사이지역’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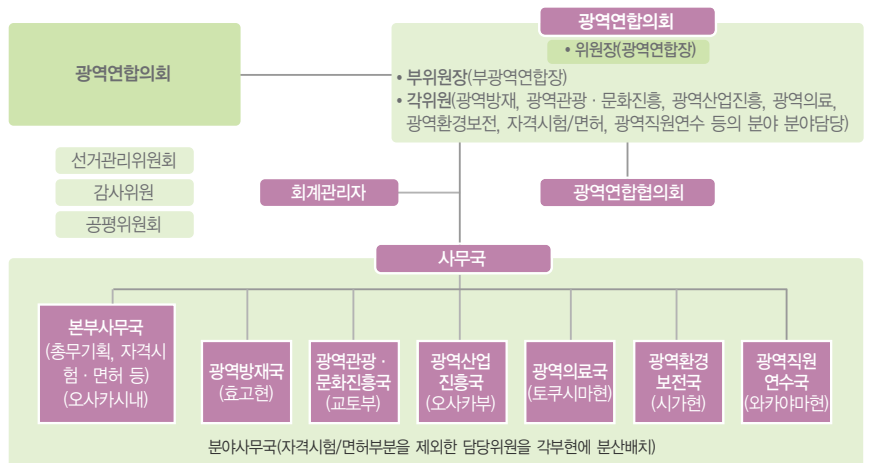
당초에는 방재, 관광·문화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등 7개 분야에서 광역사무를 시작했지만 ‘발전적인 광역연합’을 위해 차후에는 항만, 국도 및 하천의 일체 계획, 정비 및 관리 등 광역연합사무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한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은 현행 지방자치에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강한 여타 동북아시아지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이 경험하게 될 광역연합의 성패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역연합의 개요

명칭	칸사이 광역연합
광역연합장	이도 토시조우 (효고현지사)
설립일	2010년 12월 1일
구성단체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토토리현, 토쿠시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코베시(2012년 8월 14일 현재)
주요업무	• 광역적인 행정과제에 관한 업무 중 부현(광역자치단체)보다 상위 광역행정체가 담당해야 할 사무. • 광역방재, 광역관광·문화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연수 등 7개 분야의 사무 • 중앙의 출장기관으로부터의 업무와 권한 이양 • 7개 분야의 사무 확충 및 새로운 분야의 사무

조직도



물과 운하의 도시 라오청(聊城)시

산둥성 라오청시 소개

산둥성 서부지역에 위치한 라오청시는 8개 현(縣)과 1개 경제개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8,175km², 인구는 604만명이다.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라오청은 “강북(양쯔강 북쪽)의 물 도시, 고대 운하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2011년 라오청시는 공업분야 소득이 5,000억위안(元)을 넘어서면서 산둥성 17개의 도시 중에서 7번째로 큰 소득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라오청시의 수역(水域)면적은 전체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속의 물, 물 속의 도시(城中有水 水中有城)”라는 말처럼 도시와 물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특유의 풍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의 30% 이상이 숲으로 이뤄져 중국의 도시녹지화 선진도시이기도 하다. 그 밖에, 중국의 역사문화 도시, 우수관광도시, 청결도시, 조정도시, 환경보호 모범도시이자 관군민(官軍民)을 우대한다는 의미의 전중국슈양용(雙擁)모범도시이기도 하다. 독특한 매력과 우수한 환경의 라오청시는 살기 좋고, 투자창업하



라오청시의 전경



1. 라오청시 야경
2. 경기도산업단지 계획도
3. 산산(山陝)회관 : 고대 인근지역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 건립한 예술공연장소
4. 황하생태문화구역
5. 전기자동차생산라인
6. 동창(東昌)호수
7. 라오청공업단지
8. 라오청시 극장
9. 경기도산업단지 조감도

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

2012년 산둥성은 한국 경기도와 공동으로 산둥성 라오청시에 “경기도산업단지” 건설을 결정했다. “경기도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을 5km²로 계획하고 있으며, 첫 단계 사용면적은 4km²로 하나의 주요 구역과 두 개의 보조 구역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구역에는 지우저우(九州) 국제하이테크단지를 중심으로 LED 및 자동차부품, 정밀기계 과학기술 R&D 등의 산업을 육성하여 전 중국, 더 나아가 세계 일류의 하이테크산업 발전 중심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바이오과학기술 단지(보조구역)는 생물과학기술과 의약산업을 위주로 세계 최대의 사료 및 식품첨가물 생산기지를 형성하여 바이오과학기술과 의약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화학공업신소재단지(보조구역)는 화학공업 및 신소재산업을 위주로 정밀화학공업 및 화학공업신소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경기도산업단지”는 앞으로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최첨단, 고효율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 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 혹은 산둥성과 경기도 사이의 순환경제시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라오청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남아 있다. 라오청은 춘추전국시대의 제(齊), 노(魯), 연(燕), 조(趙)나라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 고전문화인 “수호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청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대외개방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과학기술, 자동차 및 기계 제조, 경공업 및 방직공업, 컬러금속가공, IT 등 중요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적의 투자환경, 창업환경, 주거환경으로 일본, 한국, 유럽,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2011년 라오청시 GRDP성장률은 산둥성 2위를 기록하였으며, 산둥성 내 지방재정수익 성장률은 1위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라오청은 전반적인 “생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산둥성 서부지역의 신흥생태공업도시, 허베이·산둥·허난성 교차지역에 위치한 상업물류중심도시, 양쯔강 북쪽지역의 문화·관광·레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오청시는 여러분의 여행과 투자를 위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자곡로 394(자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11~20 F. +82-54-223-2309 E-mail neargov@hotmail.co.kr Website www.neargov.org